한라시론

이 영 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환경 현안을 해결하는 민생 도지사를 기대한다

지방선거가 끝났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당선된 위성곤 당선인의 일성이 의미 있다. "도민의 삶을 가장 먼저 챙기는 민생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도민들의 압도적 지지에 대한 감사 이상으로 향후 도정 운영 방향을 읽을 수 있다. 위 당선인은 "이번 선거 승리 배경으로 도민의 삶과 민생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는 약속에 공감해 주신 결과"라며, "현장 중심의 민생 행정으로 도민과 직접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지역에는 현재 제주 제2공항 문제를 비롯해 여러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 중에서도 환경 관련 현안은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제주사회로 가기 위해 위 당선인이 집중해야 할 핵심 분야이다. 환경 현안은 생태계 보전의 문제를 넘어 경제활동, 물가와 주거환경, 시민 안전 등과 결부된 민생현장이기 때문이다.

먼저 지역사회의 최대 현안인 제주 제2공항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 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내내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하여 최종적으로는 주민투표 또는 공론조사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도민의견을 물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따라서 새 도정의 취임과 함께 제2공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민결정의 절차가 곧바로 진행돼야 한다. 제2공항 계획에 따른 쟁점 사항의 검증도 병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인수위원회에서 위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제2공항 도민결정권 이행계획을 우선 수립하여 해묵은 갈등을 풀어야 한다.

둘째, 지하수 현안에 관심을 두길 바란다. 위 당선인은 선거 기간 제주환경운동연합의 환경정책 제안에 따른 답변을 통해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증산은 불허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중산간 지역 300m 이상의 지구단위계획을 금지하고,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내 개발행위 제한 규정 도입을 약속했다. 따라서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공항 먹는샘물 지하수 증산과 한화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지하수 보전의 관점에서 논란이 종결되기를 기대한다.

셋째,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시행을 당부한다. 제주의 해양생태계는 한반도에서도 생물다양성이 매우 풍부하고, 생물자원으로서 가치도 뛰어나다. 따라서 해양환경의 보전 및 복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과 경제활동을 도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따른 보전관리계획 시행으로 해양환경과 주민이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 특히 해양환경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해양생태계 보전과 자원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이 외에 제주 탄소중립 계획에 역행하는 신규 LNG 발전소 건설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시행해야 한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여 플라스틱 제로섬 제주를 실현해야 하는 것도 현안 과제이다.

당면한 환경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여 도민의 삶과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 헌신한 민생 도지사로 기억되길 바란다.

사설

위성곤 인수위 출범… 서민 밀착형 설계를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 민선 9기 도정 인수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위 당선인은 지난 9일 제주시 오라동 제주BS빌딩에서 인수위원회 임명식과 현판식을 가진데 이어 첫 번째 회의를 진행했다. 위 당선인은 인사말을 통해 인수위는 단순히 정책을 나열하는 조직이 아니라 실행력 있는 실무형 현장 중심의 인수위가 돼야 함을 강조했다. 취임 즉시 민생 안정을 위한 도민과의 약속을 실천할 수 있게 인수 작업과 정책 설계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모든 공약을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와 국비 확보 과제, 법·제도 개선 과제로 정밀하게 분류해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결과로 평가받는 실행 중심 도정 준비를 당부했다.

위 당선인은 민생 실용주의 정책을 모토로 취임 즉시 민생경제 회복에 방점을 두고 있다. 선거기간 각종 여론조사에서 도민들이 최우선적으로 꼽은 제주현안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임을 감안한 결단이다. 위 당선인 역시 선거 당시 공약으로 3000억원 규모 민생 추경의 신속한 편성과 생활 밀착형 공사 조기 발주, 민생경제 비상상황실 설치, 제2공항을 비롯한 도내 갈등 현안들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약속했다.

현재 제주가 직면한 현실은 암울하다. 관광산업과 건설경기 침체, 청년 일자리 부족, 저출생 고령화 고착 등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인수위는 제주 4년의 미래를 설계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니고 있다. 제주가 처한 현실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진단해 도정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형식적인 인수절차가 아니라 서민 밀착형 도정 방침을 도출해야 한다.

열린마당

장마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산만이 아니다

한 지 원
제주시 아라동 주민

어느덧 제주에도 본격적인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우리는 우산을 챙기고 비를 피할 방법부터 생각한다. 하지만 장마는 단순히 불편한 날씨가 아니라 우리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와 침수 피해는 장마철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

특히 제주도는 해안과 중산간 지역이 넓게 분포해 있어 장마철에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안도로는 강한 비바람과 높은 파도가 동반되면 위험한 공간으로 변할 수 있고, 중산간도로는 짙은 안개와 빗길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최근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안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해안가나 계곡, 오름 등을 찾았다가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로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위험지역 통제 안내를 준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장마철 안전은 거창한 대비책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외출 전 기상예보를 확인하고,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침수된 도로나 하천 주변에 접근하지 않는 작은 실천이 사고를 예방하는 첫걸음이다.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중요하다.

올여름에는 우산뿐만 아니라 안전을 먼저 챙기는 습관으로 자신과 가족, 이웃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제주보훈청, 현충일 차량 조기 통제 논란 사과

호국영령·호국영웅 합동 추념

○…제주 출신 호국영웅 4인과 6·25전쟁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리는 합동 추념식이 10일 제주시 신산공원 6·25참전기념탑에서 개최.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제주도지부가 주관한 이번 추념식에는 주요 기관·단체장과 전몰군경 유가족, 도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천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헌화·분향에 이어 추념사를 통해 제주 출신 호국영웅인 고태문 대위와 강승우 중위, 김문성 중위, 한규택 하사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위로.

박 부지사는 "제주도는 호국영웅들의 보훈정신을 미래세대에 올바르게 계승하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 오소범기자

"재발 방지에 최선 다하겠다"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이 거행된 지난 6일 국립제주호국원을 찾은 고령의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이 계획보다 이른 시간에 이뤄진 차량통제로 불편을 겪은 것과 관련해 제주보훈청이 공식 사과.

10일 제주도 보훈청이 누리집에 올린 사과문에 따르면 당초 현충일 추념식 행사 운영과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제주호국원 내 일반 차량 통제를 오전 7시부터 실시할 계획이었으며 임시주차장과 순환버스를 운영해 참배객 이동을 지원하고자 했으나 현장 운영 과정에서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계획보다 이른 시간에 차량 통제가 이뤄졌고 이로 인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

도 보훈청은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 박소정기자

제주도 무형유산 전승 실태 돌아봐야

최근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에서 공개한 '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정기조사 및 조사 개선 방안 마련' 용역 결과는 제주도 지정 무형유산이 처한 현실을 알려준다. 2025년 기준 공동체 종목을 제외한 22개 종목 전체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 등을 거쳐 내놓은 최종 보고서는 '제주 문화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무형유산들이 간신히 명맥을 잇고 있음을 보여줬다.

제주도 무형유산 보유자들의 고령화는 상당 정도 진행 중이었다. 그럼에도 보유자를 보조하거나 대체할 전승교육사는 턱없이 부족하다. 전승 교육의 연속성이 단절될 위기에 놓였다는 진단이 나오는 이유다.

덕수리불미공예, 제주도옹기장, 정동벌립장 등 전통 기술 분야는 적지 않은 원자재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정동, 대나무, 옹기 흙 등은 기후 변화 등으로 원자재 확보마저 어려운 실정이다. 성읍민속마을오메기술, 고소리술 등 전통주 종목은 재료비 부담만 커지고 경제적 자생 활로는 사실상 막혀 있는 기형적 전승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제주도에서 새로운 무형유산을 지정하거나 보유자를 인정했다는 소식을 전했지만 기존 종목들이 어떻게 전승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탐라문화제, 제주 무형유산대전 등에서 무형유산 종목을 시연해 왔으나 전승 활동이 부실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곳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용역 연구진은 종목별 현황과 문제점에 이어 관련 법률, 운영 규정 등에 근거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그것들이 보고서의 문장에 그치지 않고 제주도 무형유산 정책에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후속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연주현공 상종 (향년 93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6년 6월 11일

배우자 전정순

아 들 현동헌 며느리 성애숙

충헌 문정숙

명헌 양복희

제주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른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흘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이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 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제주토박이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가족묘지·문중묘지
허가 대행
벌초대행·각종제초작업
묘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 화장·무연고 전문
개장신고서 무료 작성 대행
장례지도사 강봉호
010-5254-6661
『 진주강씨 제주도종회 이사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
하나장의사
616-08-85402